

절은 없어져도 가르침은 남았다

[조선일보 2006-03-10 19:40:56]

절터, 그 아름다운 만행 | 이지누 글·사진 | 호미 | 428쪽 | 2만4000원

[조선일보 김한수기자]

“그 곳이 나에게서 곧 독락(獨樂)의 선방(禪房)이었으며 무문관(無門關)이었다.”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‘독락의 선방’은 폐사지(廢寺址), 즉 절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곳이다. 기껏해야 석탑이나 당간지주 정도만 남은 잡초 무성한 절터이지만 보는 눈이 있는 이는 그 빈 공간에서 무언(無言)의 가르침을 포착한다.

불교 조계종 기관지 ‘불교신문’의 논설위원인 저자는 지난 1년여 동안 매주 한 번씩, 모두 7만여 km를 자동차로 달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폐사지 25곳을 찾았다.

선종(禪宗)의 문을 연 양양의 진전사지를 비롯해 선림원·굴산사·법천사·거둔사 등 강원도의 절터와 법수사·법광사·단속사·가섭암 등 경상도의 절터를 훑는 저자의 발길을 따르다 보면 눈(雪)을 이고 있는 작은 석불(石佛)과 무너지고 깨진 석조 조각에서도 선조들의 깊은 신앙과 세월의 무상을 함께 느낄 수 있다. 또한 폐사지의 구석구석을 담은 빼어난 사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서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.